

중재-반응 접근법의 배경과 의미

- 2004 년 개정에서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어떤 아동도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the No Child Left Behind(NCLB)”를 강화해 오면서 각 주의 지역교육청들이 3 단계 모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 적용함
- 학습장애 판별을 위해 IQ 보다는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학습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측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제언에 따라 “심각한 격차” 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동시에 “중재에 대한 반응의 기준을 덧붙였음
- 중재-반응 모델은 학교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으로 검증된 교수”를 이용하여 아동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업수행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 학습장애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임
- 기존 영역에 읽기 유창성을 포함하였고 수학추론(mathematics reasoning)을 수학문제해결(mathematics problem solving)로 바꾸어 표현하였음
- 중재-반응모델에 의한 판별의 문제점
 - - “과학적이고 실험적으로 검증된 교수”가 무엇인지 불분명
 - - 최적의 질 높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되었다 할 수 없음
 - - 진전 상황을 평가할 진단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질 높은 교수를 모든 곳에서 제공하고 아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 - 학습수행이 향상되지 않았다(lack of response)는 것의 정의가 불명확
 - - 이렇게 판별된 아동들이 다른 장애 아동들이나 학습부진 아동들과 과연 다를 것인가 하는 의문
 - - 표준화된 검사로는 9 세 이전에 학습장애 진단이 어려워 조기중재가 어려움